

### 박춘선 서울시의원, 이음하천 살리기 본격 시동... "이음하천 광역협력 물꼬 튼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의원으로서 활동하는 '이음하천 살리기 연구모임'이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구모임은 3월 31일 고덕천 일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과 경기도 하남시에 걸쳐 물길을 이루고 있

는 대표적인 이음하천인 고덕천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상반기 활동계획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김영철 의원(강동5, 국민의힘)과 이종태 의원(강동2, 국민의힘)과 고덕천 환경 정화활동을 이끄는 지역 환경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덕천과 대사골천 등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하천을 중심으로, 단절된 관리체계와 협력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시 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하천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인접 지자체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는 여전히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양천(구로구-광명시), 중

랑천(도봉구-의정부시), 탄천-세곡천(강남구-성남시), 양재천(서초구-과천시), 창릉천(은평구-고양시), 향동천(마포구-고양시) 등 주요 하천들이 서울과 경기 지역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으며, 고덕천과 연결된 대사골천 역시 강동구와 하남시를 잇는 대표적인 경계 하천이다.

그러나 일부 하천을 제외하면 공동관리 협약이나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질 관리·시설 유지·재해 대응 등에서 책임 주체가 분산되고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모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이음하천

실태조사 및 데이터 기반 관리 ▲정책·조례-예산 연계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상반기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박춘선 의원은 강동구와 하남시를 잇는 대표적인 이음하천인 고덕천(연장 3.54km)과 대사골천(연장 0.45km)의 공동 관리를 위한 강동구와 하남시의 협력적 노력과 주민들의 이로운 활동사례를 들며, 광역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천은 행정구역으로 나눠 있지만 관리체계는 여전히 경계에 갇혀 있다"며 "이음하천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광역 협력과 시민참여가 결합된 새로운 환경 거버넌스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성 기자

### 강남구의회, '세곡천 힐링텃밭 개장식' 참석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규는 3일 세곡천 제1힐링텃밭 및 스마트팜 LAB(교육장)에서 열린 '세곡천 힐링텃밭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규 의장·북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광삼 의원·윤석민 의원·김형근 의원이 참석하여 현장 곳곳을 둘러본 뒤 텃밭에 직접 물을 주고 모종 등을 심으며 친환경 도시농업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개장식 ▲시범 경작지 종자 및 모종 식재 ▲텃밭 라운딩 ▲스마트팜 라운딩 등 순서로 진행됐으며, 종자(열갈이, 열무 각 1봉), 유기질 비료(2kg 1포), 작물 재배 안내 리플릿 등의 지원물품이 제공됐다.

이호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성껏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는 과정을 통해 우리 강남이 더욱 건강하고 푸른 생태 도시로 거듭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이 텃밭에서 수확의 기쁨과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규는 3일 개포동근린공원에서 열린 '구민참여 정원술 조성 행사'에 참석했다.

'구민참여 정원술 조성 행사'는 '2026년 식목일 기념, 우리동네 초록기부 챌린지'라는 테마로 구민들이 기부한 수목과 정원, 휴게시설을 바탕으로 정원술을 조성하고 공원을 함께 가꾸는 구민 참여형 식목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기부자(개인·기업), 지역주민, 인근 어린이집, 새마을지회, 강남정원사 등을 비롯해 약 5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이호규 의장·북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광삼 의원·윤석민 의원·김형근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기부 수목 및 정원을 식재했다.

이장성 기자

### 인천시의회, 도심 복합사업 지역 상생 촉구...시공사 소통 부재에 간담회 파행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3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의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이 지역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 시행사, 시공사 등 각 주체가 모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도시공사(이하)가 추진 중인 제물포역(미추홀구 도화동)과 부평동(굴포천 남측) 일원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의 도심 지형을 새롭게 그리는 핵심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과 이단비위원을 비롯해 인천시 관계 부서, 인천도시공사 사업 담당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단, 주민대표회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시의회,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시공사, 주민대표회의 등 관련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의 참석 지연 등 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제기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형 건설사가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실질적인 협력은 현장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약속 이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심하린 기자

### 전국 기초의회 시도대표회의 동두천에서 열려



대한민국 지방자치회를 이끄는 전국 기초의회 시도대표회의가 동두천에서 모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뜻을 다졌다.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와 경기도시군회의장협의회(회장 김승호)는 3일 동두천시 자연휴양림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제274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군회의장협의회와 동두천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시도대표회장들과 주요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뜻을 모아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시도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와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시군회의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승호 의장이 제안한 「국가하천 규제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5건의 건의안이 심의·채택됐다. 아울러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 대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시상과 유공 공무원 표창도 이뤄졌다.

김승호 경기도 대표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전국 226개 기초의회는 풀뿌리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주춧돌"이라며, 이번 시도대표회의가 지방자치의 현재를 점검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세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회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며, 의회와 집행기관, 중앙과 지방, 기초의회 상호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민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 현안 심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 분야 주요 안건을 심사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동의안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및 행복을 만드는 집 운영 동의안 ▲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10·11호점 운영 동의안 등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돌봄시설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안건이 다수 포함되면서, 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상정된 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한 환경안전위원회는 3일(금),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국민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8일(수),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민수 기자

### 충남도의회, 시로 주민 의견 '정책화' 속도 높인다



충남도의회는 3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AI 기반 주민참여 확대와 정책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연구 방향을 토대로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 의견 수렴부터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작동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을 비롯해 도 관계자, 학계 전문가, 주민자치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주민 의견 분류 및 정책 연계 시스템 구축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AI 교육 모델 ▲주민총회 의제의 정책 반영 체계 개선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주민총회 및 참여예산 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반 자동 분류·분석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주민자치는 의견을 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며 "AI는 주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데서 나아가 그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연결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주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과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2026~2027

## 광주

경기도의 힘찬도약,  
광주에서!

# 2026~2027

## 경기도종합체육대회

### 에서 열립니다!

# 2026

4월26일(일)~28일(화)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4월16일(목)~18일(토)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 2027